





3

14

29

표지 설명 : 스위스의 산 경치(윌리엄 플로이드 홀드만 촬영)

성도의 빛 10

1984

차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킵블
매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힝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클리
엘 롬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오크스

고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렌 시 던
랙스 디 퍼네가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피 리

영적인 지식을 받고 적용함.....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1
질의 응답	6
마음의 변화.....시 리차드 치데스터	11
“지존자의 아들들이라”.....존 에이 트베트네스	18
강풍에 깨끗하게 씻기다.....수센 치이그 일라이어스.....	20
축복에 의하여 축복받음.....레베카 데노스맨	23
질의 응답	24
써를 싹트게 함.....멜빈 제이 레비트	27
그녀의	
이름조차 몰랐습니다.....제닌 울시 바스가드	34
내 형제가 저기 삽니다.....리 마호니.....	37
여러분의 앞자리.....진 알 쿡 장로	39
심심풀이.....로버타 엘 패어를.....	42
가인과 아벨	43
멜리사의 침례.....헬렌 이 키이저	46
해외 소식	50
지역 소식	51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년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년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230호, 제20권, 제10호
등 목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4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 서 원 편집인 : 김 영 철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010041-31-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57KO PRINTED IN KOREA 10/84

© 1984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International Magazine

영적인 지식을 받고 적용함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저는 주님께서 니고메모와 이야기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감명을 받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니고메모는 유대의 산헤드린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의 실체와 그분의 메시지에 관하여 더 많이 배울 목적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니고메모는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 3:2)라고 했습니다.

니고메모는 질문하고 추구하는 가운데 주님에게 질문하고 그로부터 지식을 구해야 한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선생이라는 사실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는 주님의 기적을 보고 들은 것에 이런 결론의 근거를 두고 있었

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니고메모에게 그가 찾는 지식이 그런 증거 즉 기적을 보고 듣는 것이나 어떤 위대한 사건을 보는 것에만 기초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차원이 높은 배움의 과정, 즉 감각적인 인식의 세계를 초월하여 실재하는 무한한 세계에 민감한 감지력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찾거나 보거나 들어갈 수 없다는 진리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3)

그런데 니고메모같이 교육을 받고 숙련된 현명한 사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니고메모는 이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하여 이렇게 여쭙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요한복

음 3:4)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6)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때까지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하였으므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해력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두 가지 진리의 원천...육신의 정상적인 감각을 통하여 오는 것과 성령을 통하여 오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에게 설명한 것도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주 성령에 속하는 것과 영원한 진리와 위대한 사건과 표적의 의미와 영원한 진리를 인간의 배우는 과정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고전 2:4-5, 9-10, 14)

주님은 니고데모와 이야기하시는 가운

데 계속해서 영적인 지식의 근원에 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은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요 3:7-8)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은 여기에서 성신의 은사—주님이 말씀하신 성신으로 거듭남—를 통하여 얻어야 하는 진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불어오는 바람처럼 분명하고도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에 관하여 배우는 과정은 실재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말일에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이 기본적인 진리를 재확인하셨습니다. 예언자는 그에게 계시로 주어진 기도문인 커트랜드 신전을 헌납하는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록하신 아버지여, 이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시며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게 하옵소서...”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저들이 당신 안에서 자라나 성신의 충만함을 받으며 당신의 율법에 따라 조직을 갖추며 모든 요긴한 것들을 마련하도록 준비하게 하옵소서.”(교성 109:14-15)

이 기도문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만 주님께서 그 사람이 배우는 것을 온전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1-32) 우리를 자신의 죄와 죄의식과 잘못된 개념과 그릇된 지식과 비생산적인 행동과 품행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진리는 성령을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오늘날처럼 세상적인 학문이 많이 발전하고 널리 퍼졌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와 그 진리가 가져다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와 참된 자

유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의 핵심이 되는 것은 이 진리를 얻고 또한 이 진리를 의롭게 고수하는 사람에게 이 진리가 가져다 주는 평화, 행복, 안정, 자유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일반적으로 배우는 과정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지식의 근원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경전을 공부하고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의롭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찾는 가운데 이런 진리를 얻으려는 진실되고 정직한 소망을 갖는 것이 이 확실한 지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을 이런 표준까지 끌어올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되 어두움이 이를 깨닫지 못하느니라.”(교성 88:49)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일성도가 주님과 그의 예언자들이 정하신 그 과정을 따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위대한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관한 지식과 말일에 나타날 것으로 예언된 위대한 준비의 사건과 환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또 얻을 것입니다.

성신의 은사와 권세를 통하여 대조부터 거룩한 진리가 인류에게 계시되었읍니다. 조상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모든 경륜의 시대를 통하여 하늘의 진리가 예언자에게 전해졌으며 예언자는 다시 자기 생활에서 이 진리를 이용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 진리를 가르치고 기록하였읍니다.

이 끊임없는 영원한 진리의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의 본성과 또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참된 지식이 오는 것이며 이것이 없으면 누구도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있는 여러 가지 사건의 목적을 이해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말일성도로서 하나님의 그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압니다.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무한한 지식과 인도의 근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일상 생활에서 영적으로 인지하는 과정을 배우고 사용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의 가르침을 적용하려고 애쓰면서, 결혼 상대자를 찾으려고 애쓰면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스스로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 주면서, 경건으로부터 지식을 구하면서, 말일의 예언자들의 훈계를 따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의미있는 시기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또한 끝까지 충실하게 견디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이런 영감의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과 더 많은 여러 가지 일에서 참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근원으로부터 오는 인도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또한 그의 가르침을 우리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오는 유익을 경험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식을 적용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웃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원천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웃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 가리라 하시니라.”(마 25 : 31-46)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진리와 이해력을 얻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니 이런 진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배우고 난 후 우리의 시험은 우리의 일상 생활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지식과 사

랑과 자신과 생활과 행동과 품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을 할 때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두 가지 진리의 원천...육신의 정상적인 감각을 통하여 오는 것과 성령을 통하여 오는 것...이 있습니다.
2.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배우는 과정은 실재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해하려면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3. 우리를 자신의 죄와 죄의식과 잘못된 개념과 그릇된 지식과 비생산적인 행동과 품행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진리는 성령을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4.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의 가르침을 적용하려고 애쓰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 진리를 배우도록 도와 줄 때 영감받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토론시 유의 사항

1. 성령의 인도에 의하여 생활할 필요성에 관한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한다. 가족이 그들의 느낌을 함께 이야기하게 한다.
2. 이 기사에는 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읽고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방문하기 전에 가장과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 토론이 더 잘될까? 영원한 진리와 성신의 동반하심의 필요성에 관하여 정원희 지도자나 감독이 가장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질문 : 물몬경에 충만한 복음이 담겨져 있을진대 왜 신전이나 신전 사업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 : 몬트 에스 나이먼, 브리감 영 대학교, 고대 경전 교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충만한 복음”이란 말의 의미를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에서 물몬경에 충만한 복음이 담겨 있다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교성 20 : 9; 27 : 5; 42 : 12 참조). 또한 모로나이 천사도 요셉 스미스에게 물몬경에 충만한 복음이 담겨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분은 이 대륙에 먼저 살았던 백성들의 기사와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에 관한 기사가 금판에 기록되어 묻혀 있다고 전하면서 이 책에 구세주께서 친히 고대 주민들에게 전하신 바 온전한 복음이 또한 적혀 있다고 하였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 : 34)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많은 대학원 학생들에게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내가 들은 모범적인 대답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희랍어의 복음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옳은 대답입니다. 그러나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많은 교회 회원

들이 “좋은 소식”의 의미를 정말로 깊이 생각한 적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좋은 소식이란 어떤 것입니까? 회복된 경전은 이 질문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납득이 갈만한 대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은 복음의 3가지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교리와 성약 33 : 11-12 :

“참으로 너희 각 사람은 죄사함받기 위해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참으로 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불 곧 성신의 침례가 임하리라.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나의 복음이라.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임을 기억하라.”

2. 교리와 성약 39 : 5-6 :

“진실로 진실로 내가 비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치 아니하는 자니라.”

“나의 복음은 이것이니, 곧 회개가 물의 침례 그리고 그후에 오는 불과 성신 곧 모든 것을 보여 주시며 왕국의 평화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의 침례니라.”

3. 교리와 성약 76 : 40-43 :

“이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 곧 하늘에서 우리에게 간증하시는 음성이니,

“예수는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사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한 것에서 세상을 깨끗케 하셨도다.

“또 아버지께서 저의 권능에 맡기셨고



저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모든 자를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으며 아버지께서 아들을 나타내 보이신 뒤에 아들은 부인하는 멸망의 자식 외에는 자기 손으로 지으신 모든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물문경에는 구세주의 가르침에 관하여 교리와 성약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면서도 교리와 성약의 것과 일치되는 경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었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사람들을 내게로 인도하여 내가 사람들 손에 달렸던 것같이 저들이 아버지로 인하여 달림을 받아 내 앞에 서서 선약간에 저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달린 것이며 아버지의 권세로 내가 사람들을 인도하여 저들이 각각 행한 대로 심판받게 하리라.

“누구든지 회개하여 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자는 흠족할 것이요, 저가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 아버지 앞에서 저가 죄없다 할 것이나,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배어 불 속에 던져지리니, 아버지의 공의하심으로 인하여 저들이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로다.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를 행하여 주신 말씀을 모두 이루사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정결치 아니한 것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라, 신앙을 갖고 죄를 회개하며 끝까지 충실하여 나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한 자가 아니면 결코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이는 계명이라. 회개하라, 너희 온 땅에 거하는 자들아, 회개하여 내 앞에 이르러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아 정결케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없이 서도록 하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복음이요, 너희가 이를 알진대 교회에서 이를 행하며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너희도 이를 따라 행하라.”(니파이 삼서 27 : 13-21).

요약해 보진대 복음의 좋은 소식이란 그것에 의하여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계획 내지는 원리와 의식이라 하겠습니까.

신전에 관한 원래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좀더 자세히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경전에서 정의내려진 대로 인간이 해의 왕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계획의 전체 개요를 설명해 줍니다. 이 복음은 인간이 해의 왕국에서 어떻게 승영을 받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해의 왕국에서 승영하기 위하여 신전 의식과 축복이 필요합니다. (교성 131 : 1-4 참조).

비록 물문경에서는 당시에 신전에서 수행한 의식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이나 가르침을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니파이인들 사이에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전 벽에 나타난 바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하여 기적으로 쓰여진 것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앨 10 : 2 참조). 이 사건은 인간의 조상의 배경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며 신전 자체에 관하여서는 설명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몬경에서 니파이인들간에 있었던 신전의 기능에 관한 얼마만큼의 정후를 얻어 낼 수 있습니다. 니파이인은 언제 어디서나 인구가 차면 신전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니파이는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이 나뉘어진 다음에 그의 백성이 “솔로몬 신전의 모양대로”(나이 5 : 16) 신전을 지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신전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교만과 부도덕에 관하여 경고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야곱 1 : 17; 2 : 2, 11). 베나민왕은 그의 백성이 가르침을 받도록 신전에 모이게 했습니다. (모사 1 : 18; 2 : 1; 5 : 7). 립하이왕은 그의 백성들이 제이라헤물라 땅으로부터 내려오는 암몬과 그의 형제들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도록 신전에 모이게 했습니다. (모사 7 : 17). 아마 이 신전은 그의 아버지 노아왕의 기록에서 여러 번 나타난 것과 같은 신전일 것입니다. 이 신전은 노아왕의 아버지인 지니프왕이 세웠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노아가 왕이 되었을 때 이미 그 신전이 세워져 있었던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사 11 : 10, 12; 19 : 5 참조). 니파이 백성들이 북쪽 땅으로 이주하였을 때도 거기에 신전을 지었습니다. (히 3 : 9, 14). 그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악인들이 멸망한 다음 백성들은 구세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 바운티풀 땅에 있는 신전에 모였습니다. (니삼 11 : 1). 물몬경에서는 레이맨이 신전을 지은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앨 26 : 29). 이 모든 증거는 에언자 요셉 스미스가 가르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또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집합의 주요 목적은 주님의 집을 건

니파이인 사이에는
영원한 결혼에 관한 지식과
의식이 있었으며
레이맨인은
배도가 시작된 이후에도
이 관습을 계속하였다.

축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의 집의 의식과 그의 왕국의 영광을 밝히고,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실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집이나 장소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의식과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02페이지)

물몬경은 신전에서 행해진 의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전 사업의 근본에 관하여 성경에 있는 것과 똑같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에언자 말라기는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과 그가 와서 자녀를 조상에게 조상을 자녀에게 물리거나 몹을 것을 에언하였습니다. 축복사의 신권이라고도 알려진 이 인봉하는 권세는 1836년 4월 3일 커트랜드 신전에서 에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회복되었습니다. (교성 110 : 13-16 참조).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다음 니파이인들 사이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말라기의 가르침을 전하라고 명하셨다고 말씀하셨으며 현재 이것은 니파이삼서 24장부터 25장 사이

아마도
 신전을 제외하고는
 이 지상에서
 주님의 계획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진행되는 곳이
 없을 것이다.

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에는 엘리야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물론 경에 신전 사업의 근본 기초를 놓으셨으며 해의 왕국에서의 승영에 관한 구체적인 가르침은 교리와 성약에 기록하도록 남겨 두셨습니다.

신전과 관련된 또 다른 의식도 교리와 성약에서 좀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남겨 두셨습니다. 이것은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 의식입니다. 물론경은 이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결혼이 행해졌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저들은 시집가고 장가들어 주님께서 저들과 맺으신 언약대로 풍성한 축복을 받았으며.”(니사 11절)

이것은 추론에 불과하지만 레이맨인 사이에는 그런 의식이 수행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동남(아메리카) 인디언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던 골든 알 부캐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부족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결혼의 원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호피(인디언) 결혼은 아름다운 의식으로서 신부는 약혼자의 손으로 짠 아름다운 흰 옷을 입으며 이 결혼식은 신성한 것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식은 ‘죽음이 그대를 갈라놓을 때까지’가 아닙니다.”(“인디언 전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5년 4월호, 286 페이지).

그러므로 니파이인 사이에는 영원한 결혼에 관한 지식과 의식이 있었으며 레이맨은 배도가 시작된 이후에도 이 관습을 계속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신전에 관하여 또한 승영을 가져다 줄 다른 의식에 관하여 물론경에서 더 많이 계시하시지 않은 이유는 계시의 성격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전은 “열린 계시” 또는 읽을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신전은 “닫혀진 계시” 또는 이런 거룩한 계시를 알고 이해하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려는 사람을 위해서만 유보된 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이 계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유보되었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02 페이지 및 교성 124 : 36-41 참조). 우리가 복음의 일부로 그런 의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여기 있으며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이용하여야 합니다. 복음은...인간이 해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계획의 전체 개요를 설명해 줍니다. *

마음의 변화

시 리차드 치테스터



화목한
관계의
열쇠

나는 외관과 행동이 참으로 남을 비난하는 태도이며 자주 그의 아내와 자녀에게 최악의 욕설을 퍼붓는 사람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와 그의 아내를 여러 번 면담하여 그가 자신의 비난하는 마음 상태를 알고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를 내면서 내게 욕설을 퍼붓고는 요란하게 사무실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후 그의 부인이 별거를 요구하여 그 남자는 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두 번 다시 이 부부를 다시 볼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남자가 두 달 후에 내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였을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다시 부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일전의 행동에 대하여 사과한 다음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일을 설명하였습니다. 부모와 함께 기거함으로써 자신에 관하여 좀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시로를 멸시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을 보고 이 남자는 자신이 바로 늘 그들이 하던 것과 똑같은 행동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곧 그는 부모의 그런 행동 때문에 밤에 집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다른 사람들 특히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똑같이 그 비난하는 행위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료들이 뒷소문을 터뜨리고 서로 불평하고 깎아 내리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가족을 그리워하기 시작함에 따라 그의 마음이 차츰 부드러워지기 시작하였으며 자신이 그들을 다루었던 방식에 가책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육체적으로나 말로 학대했던 때의 장면이 마음에 스쳐갔으며 자신의 그 용납 못할 행위를 보상해야 할 필요성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슬픔은 커져서 마침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도움을 구하러 왔을 때 그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나빴으나 하는 것을 자인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실제로는 늘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와 불행에 대하여 아내와 자녀와 환경에 책임이 있다고 믿도록 자신을 속여 온 것입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이 좀더 자기를 잘 이해해 주고 좀더 사랑을 보여 준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마비시키는 비참한 자기 연민의 거미줄에 사로잡혀 자신이 그 거미줄을 만들어 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에 관한 진실을 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알게 되자 상한 심령과 뉘우치는 영을 갖고 깊은 검은색의 상태로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자신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문제가 영적인 것인 동시에 자기 자신이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 문제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최상의 위치에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내부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응하게 되자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가 긍정적이고 존속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여러 번의 상담이나 다른 사람의 많은 권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완전한 마음의 변화는 내가 보아 온 클라이언트(피상담자)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늘 경진과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해 오셨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그가 나에게 확인해 준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할 것입니다. 평화와 화목한 관계로의 열쇠는 복음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때

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관계에서 화평과 조화를 지속시키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자신의 내부에 화평과 조화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화평은 작고 고요한 성령의 음성에 따라 우리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할 때 옵니다.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는 대부분의 감독이 회원과 상담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지만 행동 수정 기법을 위하여 이 메시지를 무시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목표 설정, 행동 목표, 행동 변화 기법, 긍정적 태도 및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기 개선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방식이 어느 정도 희망하는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런 것은 세속적인 것이므로 부분적인 해결책일 따름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경진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본성의 커다란 변화는 하나님의 복음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히 3 : 35 참조). 우리가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순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악을 좇으려 하지 않고……계속하여 선행을 하계”(모사 5 : 2)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모사 4 : 13)게 되므로 그런 의의 상태는 화목한 관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상한 심령은 순결하고 거룩하고 죄에 대하여 벌받을 일

이라고는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에 대한 고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 벌을 스스로 받으셨다는 것을 깊고 엄숙한 슬픔을 안고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개인을 위하여 그가 받으신 큰 고난을 실제로 인식하는 것은 겸손해지고 상한 심령을 갖게 하는 경험입니다. 그러한 인식은 우리가 변화하여 그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상한 심령은 자신의 개인적인 죄와 그 죄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초래하는 고통에 대하여 정말로 슬픔을 느끼는 것이 포함됩니다.

애 통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멸의 상태로 우리의 타락한 위치를 깨달은 다음(모사 4:5 참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하여 새 마음과 용서와 자비를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발휘하고 그분에게 의지함에 따라 그분은 우리가 변화하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되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얼마나 개선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참되게 인식하고 거기에 노력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면 그의 영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순간 순간의 인도를 해주실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타락하고 자기 만족에 빠진 교만한 상태로부터 그리스도같은 생활을 하고 의의 상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이런 복음의 원리를 통하지 않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마술 공식이나 간단한 기술이 있다면 참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시에 종교적인 카운셀러나 전문적인 카운셀러나 모두 사랑이 없는 행동은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화평과 화목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을 정규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력을 통하여서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화평과 바른 마음을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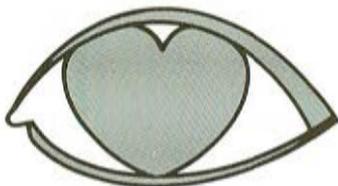
나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요 14:27)고 하신 구세주의 말씀이 얼마나 참된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의”보다는 자비입니다.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대개 비난이 비난을 부르고 악순환에 빠져 들어서 서로 상대방이 문제이며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공의”가 행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하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공의가 행해지기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종류의 “공의”는 사실은 보복입니다.

우리가 복수하려고 애쓸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꾸짖고 자극해서 격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대하여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기 합리화 방식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것을 멈출 때에만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변화할 것을 바라는 것을 멈추고 자신에 관하여 정직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품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전까지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약점에 대하여 정직하면

우리는 성령을 지니고
현실을 인식할 때
모든 육신의 인간은
장점과 약점이 합쳐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좀더 동정적인 견해를 갖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여성으로 하여금 남편을 그렇게 비난하는 태도로 대하지 않고 좀더 진실되게 동정적으로 보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성에게 내가 아는 대로 그녀의 남편과 그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녀가 이어받아서 그녀의 견해를 기록하도록 부탁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먼저 그 남편의 문제점과 약점의 일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의 장점을 열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인이 그 다음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이 아이들에게 참으로 선했다는 것, 와드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 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하는 점들을 묘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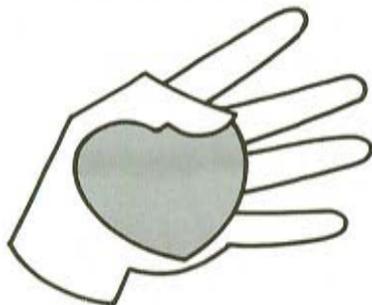
갑자기 부인이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것을 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결혼한 남자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 남자가 항상 거기에 있었으며 단지 그 부인이 남편의 약점에 대한 너무 과장된 관심 때문에 남편의 장점을 보는 것을 멈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남편을 바라

보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묻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 수년간 계속해서 당신을 탓하고 냉대한 것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해요. 혹시 저를 용서하실 수 있으요?”

그 부인은 자신에 대하여 또한 남편이 자신을 잘못 대하는 방식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여 그 상담을 하러 왔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슬퍼하며 떠났습니다. 그녀가 자신에 대한 진실을 인정하게 되자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진심으로 변화하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태도와 품행에 더 관심을 기울일 때 관계 개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변화하고 선해지고 책임감있게 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정적이고 용서하며 인내심이 많습니까? 또는 그들이 책임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약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관성있는 행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받음에 따라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과...이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배울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동을 할 힘은 하나님의 영을 적극적으로
찾음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원리는 자아 통제만 강조하고 있으며 이
것은 기껏해야 부분적인 도움을 줄 뿐입
니다. 성령의 은사에 우리의 진정한 힘
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자신이 얼마나 비판적이었
는가 하는 것을 자신과 남편에게 인정하
였을 때 남편이 스스로의 약점에 관하여
좀더 진실하도록 도움을 준 것입니다.
분쟁이 있을 때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음
은 교착 상태가 계속됩니다. 교착 상태
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은 한 사람이나
상대방이, 가능하면 쌍방이 모두 그 문
제에 있어서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사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신이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변화를 유
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작하
도록 기다리거나 상대방을 꾸짖어서 변
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쟁을 지속
시킬 따름입니다. 우리가 "공의"의 법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복"이라는 의
미로 해석하는)에 의하여 생활할 때 우
리는 다른 사람에게 매우 가혹하게 되고
요구하는 것이 많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생활하지 못할 때

우리는 화를 내고 그들이 따라오도록 처
벌하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와
부족한 점을 인식하는 것을 억제할 때 우
리는 비난하는 독선적인 행동으로 빠져
들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매일
용서와 인도를 주시도록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며 겸손한 상태로 깊이 빠져 들어
감으로써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한
관계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님의 자비하심을 받음에 따라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는 이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배울 필요성을 느
끼게 되며 동정적이 되고 주님이 우리에
게 행하지는 것처럼 빨리 용서하게 됩니
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정직한 의
견 차이가 없으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문제를 정직하고 올바
르게 또한 비난하지 않는 태도로 해결하
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겨울날 나의 아들 롬이 이웃
집 토끼를 돌보고 있을 때 자비를 배울고
받는 것에 관하여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물을 먹이

는 병을 비워 두는 것을 잊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병들이 모두 얼어 붙었습니다. 나는 그의 실수를 알게 되자 자비심은 일체 없이 그의 전망중에 화를 내었습니다. 나는 그가 잊은 것과 우리 두 사람이 모두 그날 아침에 시간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부당하게 그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직장에 도착한 이후로 나의 양심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한 순간에 나는 립이 내가 흔히 범하는 것과 비슷한 극히 단순한 인간적인 실수를 했을 뿐이라는 것을 자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신도 약점이 있으면서 그의 실수에 대하여 화를 낸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했습니다. 사실 립은 많은 것을 잘해 내는 양심적인 소년입니다.

나의 잘못에 대한 가책으로 인하여 나는 그의 학교로 찾아가서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가 모든 것을 동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잘못하였지만 그는 나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보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이 나를 상당히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나의 마음이 옳았다면 절대로 립의 단순한 실수에 화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립에게 자비심이 없었다면 나의 행동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며 그랬다면 우리의 관계 뿐 아니라 그의 자존심까지도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사과한(회개의 일부분으로) 다음 양심의 화평이 왔는데 이것은 베냐민왕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용서를 빌었을 때 그들에게 온 것과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모사 4:3 참조)

다른 사람을 동정적인 면에서 봄

나는 부부가 “보복”이나 비난보다는 사랑과 자비로 서로를 보게 해주려고 노력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합니다. 이 방법은 그들이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내가 아는 많은 감독님들이 그들의 카운셀링에 있어서 이 방법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각 반려자가 눈을 감게 하고 우리가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도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남편 또는 부인이 마음을 다치게 한 것 즉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나 화나게 하는 태도나 성격의 경향,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무시한 것 등을 모두 생각해 보십시오. 1분 동안 그것을 마음속에 열거하십시오. (1분간 침묵)

“다음은 어떻게든 그 목록을 모두 상상력 안에서 파괴시키십시오. 그것을 태워 버리거나 파묻거나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십시오. 영원히 없어도도록 그것을 파괴해 버리십시오.

“다음으로는 남편 또는 부인이 인생에서 직면하고 있는 시련, 도전, 어려움에 대하여 생각을 시작하십시오. 약 30초 동안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런 시련에 직면하면 어떻게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30초 동안 침묵)

“다음에는 남편이나 부인의 긍정적인 성격, 경향, 특성 즉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며 여러분이 구혼할 때 감명을 받았던 여러 가지 성격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30초 동안 침묵)

“이제 수년 동안 함께 가졌던 즐거운 시간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사랑스럽고 또는 가깝게 느꼈던 순간, 함께 웃었거나 서로 지지하고 도와

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때, 아기의 출생 등과 같이 어떤 의미깊은 일을 함께 경험했던 때를 생각하십시오. (30초 동안 침묵)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면서 마음속으로 배우자를 향하여 갖고 있었던 느낌이나 태도를 지니도록 하십시오.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현재까지는 부부가 서로에 대하여서든 자녀에 대하여서든 진실하게 이 방법을 적용하면 예외없이 마침내는 더 큰 동정, 이해, 따뜻함, 용서, 친절,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렇게 불친절했던 것에 대하여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정직하고 자비로운 눈을 통하여 볼 때 보부의 눈을 통하여 비난하는 태도로 보았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복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긍정적이고 자비로운 관점에서는 얼마나 인색하게 상대방을 보아 왔는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특별히 감동적이었던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행한 다음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기적이었는데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아이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나를 용서해 준 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오?”

우리가 충분히 성령을 지니고 정직하고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할 때 모든 육신의 인간은 장점과 약점이 합쳐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약점이 있을진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하여 화낼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인식함에 따라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을 동정적으로 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경은 백성의 마음이 육욕적이고 이기적인 상태에서부터 의의 상태로 변화하는 예를 수없이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는 언제나 신앙과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로서 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우리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여 겸손한 중에 더욱 강하게 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이 날로 굳건하여져서, 위안과 기쁨으로 가득하여지며 마음이 청결하며 성결하게 되니, 이는 오직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았음이라.” (히라멘서 3:35).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품행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력은 우리가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모사 3:19)가 되도록 우리의 본성이나 개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의 장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에 거기에 따르는 성령의 열매 즉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온화함, 선함, 신앙, 온유함, 절제 등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 5:22-23 참조).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이 변화할 때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입니다. *

시 리차드 치데스터는 전문적인 결혼 및 가족 카운셀러이며 8자녀의 아버지로서 교회 교육 기구의 중책을 맡은 간부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존 에이 트베트네스

1962년 내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던 당시, 어느 날 저녁에 나는 동반자와 함께 어떤 사람에게 선교사 복음 토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토론한 요지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것으로 그분은 개체이시며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도자는 이러한 개념을 듣고 심취되었으며,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교리와 그에 내포된 많은 의미에 대하여 그의 생각이 미칠 때마다 여러 차례 토론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선교사로 봉사하던 중에 여러 번 겪었으며 그후로도 수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사실상 많은 선교사들이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및 유대 교파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며, 감정도 없으시며, 형상 또

는 육신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온 우주를 채우지만 그 일부는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공인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들이 신회에 관해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하는 중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에 관한 말일성도들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흔히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그들 자신의 교회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토론의 필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그들의 개념은 성경을 읽고 얻은 지식에 다 기본적인 논리를 덧붙인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사람들을 전혀 뜻밖의 곳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즉 육신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개념과 거룩한 권능이 결여된 하나님의 개념 사이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수년 전에 하나님

은 단지 다른 유성에서 온 “우주인”으로서, 그 놀라운 우주선과 기타 장치로 인해 초기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는 설이 대두된 때가 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창조자도 없으며, 거룩한 계획도 없으며 타락도 없고 물론 구속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과 일치하는 회복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본질을 알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 연차 대회를 마치고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벵골 스케어를 떠나고 있을 때 나는 반물론 소책자를 나누어 주고 있는 일단의 사람들과 마주했습니다. 그 무리의 책임자는 스스로 “물론들에 대한 선교사”로 자칭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왜 이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의 소책자가 나의 호기심을 자아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말일성도의 참된 믿음에 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나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주머니에서 교회 회원들에게 질문했던 몇 가지 질문 사항을 적은 것을 꺼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입니까?” 그는 자신 만만하게 나에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 : 19 ; 사무엘상 15 : 29 참조).

“당신은 그렇게 믿고 있는 유일한 물몬이군요. 당신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응답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 그대로를 성경에서 인용하여 말

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시편 82편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신이며 또 적어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요한복음 10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요한복음 10 : 34-36 참조).

나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채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책자를 나누어 주기 위해 곧 내걸을 떠났습니다.) 차 있는 곳으로 걸어오면서 너무 많은 기독교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참된 본질이 왜곡당한 많은 면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속에 거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에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43 페이지).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필경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육신을 갖고 (종종 뿔, 꼬리, 족발을 가진 형상으로 묘사됨) 영원한 불속에 거하는 것은 악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사탄이 많은 기독교회에서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바꾸어 놓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즐거워하고 있을까하고 자주 생각해 봅니다. 오직 영으로 있는 것은 바로 악마라는 사실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실제의 하나님—께 회복된 복음의 가르침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존 에이 트레트네스는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면서 솔트레이크시티 브리감 영대학교 센터에서 야간 강좌를 가르치고 있으며 유타주 킨즈 와드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강풍에 깨끗하게 씻기다

수센 치이고 일라이어스

그 꿈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나는 잠을 깬다. 나는 동반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해서 침구에서 기어나와 킁킁한 새벽 빛 속에서 일지를 더듬어 찾았다. 그 꿈의 느낌이 희미해지기 전에 기록하고 싶었다.

꿈속에서 그 남자는 “너는 강한 바람에 깨끗하게 씻기워졌느니라”고 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했다. 그러고는 미소를 짓고 내가 서 있던 단을 쿵쿵거리며 내려갔다. 그가 누구였는가? 나는 어디에, 왜 서 있었나? 그 말은 분명하게 무슨 뜻이었을까? 그의 간단하고 시적인 다짐은 나의 가슴에 불로 새긴 듯이 새겨졌다.

일본에서의 나의 선교 사업이 거의 끝나고 있었다. 며칠만 있으면 동경의 남 선교부대를 떠날 것이며 나는 끝날 때가 되어가는 대부분의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1년 반 동안에 내가 성취한 것을 비판적인 눈으로 돌이켜 보고 있었다. 나는 성공적인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나? 그 기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다. 노력했다. 나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나 지난 1~2개월은 특별히 어려웠다. 너무나 더웠으며 나와 동반자는 지치게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나는

낙담하였으며 선교 사업 기간에 내가 성취한 선한 것과 또 그것이 개인적인 성찰을 가져다 준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노력을 좀더 긍정적인 면에서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예를 든다면 몹시 추운 2월에 노상 전도를 통하여 시주오카 와드의 가장 최근의 독신 성인 대표를 침례주게 되었다. 우리는 선교부장님의 “완전한 헌신” 계획을 지킴으로써 영적으로 강한 회원이 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칠 기회를 축복받았다. 다양한 개성을 지닌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생활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더 큰 인내와 사랑을 배웠다. 진리에 목마른 사람에게 간증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졌다. 아무도 침례주지 못하던 시기를 겪으면서 그분에게 더 많이 의지하는 태도를 키웠다. 참으로 나는 자신의 생활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의 생활이 더 훌륭하게 변화하는 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했다. “강풍에 의하여 깨끗하게 쓸어졌다.”는 말이 다시 귀에 울렸다. 그렇다, 틀림없이 성령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나에게 전해 주셨다.

“그 꿈으로부터 받은 위안으로 인하여 나는 남은 선교사 기간을 활력과 은혜 가운데 해 나갔다. 낯익은 광경, 소리, 냄새가 기억에 굳건하게 심겨졌다. 김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복잡하고 덜컹덜컹거리는 기차를 타는 것도 실제로 재미있었다. 또한 일본인 친구들의 미소와 악수가 그 어느때보다도 더 유쾌했던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여름 안개가 끼어서 시야를 흐리게 하기 몇 주일 전에 후지산의 마지막 모습을 본 것 같았다. 나의 선교 사업의 절반을 그 산으로부터 10리 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지냈기 때문에 나



는 그 산의 아름다움과 힘에서 기쁨을 느끼게 되었으며 사실은 그 산을 찬미하는 다음과 같은 시를 쓰기도 했다.

숭고한 산봉우리여
태고의 산이여
평범한 가운데
숭고하게 우뚝 솟아나도다.

아침의 제왕이여
저녁의 수호신이여
하늘까지 닿을
나의 가능성의 상징이로다.

나는 선교 사업의 많은 시간 동안 후지산의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여 다시 그 산을 볼 수 없는 것을 한탄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노력과 신앙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상을 해주셨다. 복음의 축복으로 감격한 새로운 회원들이 그들의 친구들도 그런 기쁨을 찾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데려왔다. 수개월 전에 소개 공과를 배웠던 이전에 접촉했던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나머지 토론을 듣고 싶다고 요청해 왔다. 어떤 우동집 주인이 영어를 쓰는 외국인을 끌기 위한 광고문을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는 그 과정에서 기꺼이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나의 선교 사업 마지막 1주일 동안에 6명이 침례를 받았다. 나는 가방을 싸면서 몇 주일 전의 좌절과 가슴 아팠던 일들이 사라지고 깊은 평화와 만족감에 굴복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았다.

아침의 출발은 가방과 작별이 섞여서 얼룩지는 날이었다. 꿀을 걸들인 전형적인 밀죽 아침 식사를 너무 즐겼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트에서부터 기차 정거장으로 데려다 줄 화물차까지 힘껏 달려갔다. 내가 일단 밖으로 나오자 특별히 유쾌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것은 집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자연적인 기대에서 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신선한 미풍이었다. 그렇다. 우리가 찍는 듯이 더운 여름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던 미풍이었다. 지난 5월부터 그 지역을 감쌌던 그 자욱한 젖빛 안개가 빛나는 하늘로 바뀌었다. 바람에 밀리는 파도가 힘차게 해안을 때렸으며 정체된 공기를 신선한 미풍으로 바꾸어 놓았다.

동반자와 나는 매우 즐거웠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위를 쳐다보았으며 거기엔 그 산의 장엄한 모습을 모두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후지산과 나 사이에는 그 맑고 곧으며 위압하는 듯한 모습을 가로막는 구름은 한 조각도 없었다. 내 가방을 차에 실는 동안 나는 잠시 “선한 싸움을 싸울” 영감을 받은 그 하나님의 가장 장엄한 창조물의 하나를 응시하며 혼자 서 있었다.

한 젊은 일본인 자매가 나의 몽상을 깨뜨리며 믿지 못하겠다는 즐거운 표정으로 눈을 둥그렇게 뜨고 나에게 달려왔다. “자매님, 자매님”하고 외치며 내 팔을 붙들고 활기차게 산을 향하여 손짓했다.

그 자매는 숨도 못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후지산이에요. 자매님 오늘 후지산이 너무나 잘 보여요. 강풍이 공기를 깨끗이 쓸어 버렸거든요.” *

수센 치이고 일라이어슨 자매는 관리 훈련 회사의 지역 책임자이며 텍사스 휴스턴 워드의 초등학교 교사이자 올겐 반주자이다.

축복에 의하여 축복받음

레베카 데노스맨

내가 캘리포니아의 롱비치에 살고 있을 때 릭 형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짐, 좀 와서 아내에게 병자 축복을 해주지 않겠나? 울 때 동반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오게.”라고 했습니다.

나는 혼자 가서 그를 동반자로 삼아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교회에서 비활동이었으며 지혜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초인종을 누르자 그가 문에 나와 내 어깨 너머를 살피며 “동반자는 어디 있나?”라고 했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자네가 내 동반자일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 안돼 짐. 내가 담배도 피우고 가끔 맥주도 한 잔씩 하는 것을 자네도 알잖아.”라고 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네, 자네가 조금 전에 전화할 때 ‘완전한 사람이 와서 아내에게 축복해 주기 바라네’라고 이야기했나? 만일 그랬다면 나는 집으로 가겠네. 나는 완전하지 않거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으로 들어가 그가 부인에게 기쁨부음 의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가르쳐 줄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인의 머리에 기쁨부음 의식을 하고 내가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



다. 부인은 바로 그 다음날 나았습니다.

나는 릭과 이야기를 많이 했으며 그는 술과 담배를 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주일이 지나서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짐, 담배는 끊었네, 이제 남은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노력하고 있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2주일이 지나고 그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이제 내 문제를 완전히 극복했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감독에게 데려가서 그가 신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한지 알아보게 했으며 감독님은 그가 신전에 가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기뻐 하셨습니다. 릭과 그 부인은 와드에서 신전 임무 지명을 맡았으며 두 사람 다 신전에서 충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는 1969년에 죽었습니다. *

질의 응답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질문: 저는 저의 교회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와 우선 순위 설정이 효과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제1의 우선 순위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답: 래리 쿨, 에프턴 와이오밍 스테이크 부장이며 소매 시장 개척 회사 부사장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압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놀라면 안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세 1:39 참조).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정말로 벅찬 사업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한 가지 중심 과제의 초점에 우리의 눈을 계속해서 맞추어 놓고 우리의 시간 관리와 여러 가지 의무를 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은 도움이 되기에는 아마 너무나 일반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행히 킴볼 대관장님께서 교회의 사명의 정의이기도 한 세 가지 매우 기본적인 책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1)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2) 죽은 자를 위한 신전 사업을 하고, (3)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거기에 따르는 축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 책임이 주님의 교회의 사업이며 또한 교회 회원의 의무를 받아들일

때 부여되는 우리의 사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이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프로그램의 위대함에 압도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이 위대한 프로그램의 어디에 적합한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 가운데 내가 할 일은 얼마나 되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로 우선 순위 제1번 점검표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들이 오늘날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라 생활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내 가족도 똑같은 복음 지식을 발견하고 거기에 따라 생활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셋째, 나는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구원하는 일 뿐만 아니라 왕국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받은 부름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사업을 행하도록 기대받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의 개인 생활, 가족 생활 및 타인에게 봉사하는 내 생활의 범위내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나 자신의 작은 세계에서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부름받았고 생각해 봅시다. 이 부름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임무를 통하여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하지 않으면 이 부름이 너무 많은 시간을 요구할 것입니다. 각 공과를 준비할 때마다 시각 보조 자료를 만드는

데 8시간씩이나 소모하여 매번 엄청나게 훌륭한 유인물을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방법보다는 더 간단하게 또한 더 어렵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서 “영을 받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라”(교성 42:14)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과를 위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시각 보조 자료를 만드는 데 8시간을 쓰도록 인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와 함께 소풍을 가는 데 8시간을 쓰도록 영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독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이 부름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책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항상 매주 3일 밤을 와드 집회소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책임도 있습니다. 기도와 영감을 통하여 한 주는 3일 밤을 교회에서 보내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정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똑같은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가정에 있는 것이 가족에게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어린 배 자녀의 어머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또한 교회에서 성실히 수행해야 할 두 가지 부름을 받았고 돌보아야 할 정원이 있고 병조림도 만들고 바느질도 해야 하며 외로운 이웃을 돕고 강화시켜 주고 싶으며 또 다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며 계보 탐구를 하고 정기적으로 신전에 참석해야 하는 등의 일이 끝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보면 자녀가 어린 동안은 일부 책임은 일시적으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봉

사하기를 갈망한다면 길을 찾을 것입니다. 바쁜 학생은 매주 집을 지키는 시간을 이용하여 일지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제한되어 있는 나이드신 분은 매주 비스타는 시간을 선교 사업의 초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의식과 압도당하는 느낌은 그런 느낌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정력을 소모한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기본적인 책임을 모두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합당하게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할 때 성령의 인도를 간구해야 하며 그 다음에는 지시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덜 효과적이라고 하는 죄의식을 떨쳐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훌륭한 실행 방법은 정말로 제 1번에 속하는 책임의 목록을 적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좀 상세하게 적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적는 것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른 항에 자신의 현재 활동과 노력을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록을 자신의 점검표에 비추어 평가하십시오. 어떤 활동을 그만 두며 어떤 활동에 시간을 좀더 적게 할애해야 하는지 결정하십시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쉽게 압도당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매일 처리해야 하는 많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왕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으며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

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야 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훌륭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의 왕국에서 일할 때 우리를 도와 주시며 마침내 우리가 성공의 기쁨을 갖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교리와 성약 6편을 빌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나의 말 곧 장차 주어질 간증으로서 입증될 나의 말을 거절하지 아니하면, 저들에게 복이 있고 너희 수고의 열매로 너희에게도 기쁨이 있으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가지 일을 위하여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보라, 저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노라고 내 제자들에게 말한 것같이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 하리라.

“내 아들들아, 선 행하기를 두려워 말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임이라. 그러므로 선을 심으면 선을 보상으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어린 양 떼들아, 선을 행하라. 세상과 지옥이 연합하여 너희를 대적케 하라. 너희가 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 저들이 이기지 못할 것임이라.

“보라,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일을 착실히 수행하라,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두려워 말라.

“찢린 내 옆구리의 상처와 내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보라. 충실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천국을 상속받으리라.”(31-37절).

구세주의 이 재확인의 말씀은 나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이 위대한 약속을 다시 강화시키기 위하여 회복 기간에 다시 이것과 똑같은 확신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구 가운데 하나는 교리와 성약 78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어린 아이라.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가지고 계시며 또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셨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도다.

“또 너희는 지금 모든 것을 감당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나 기운을 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임이니, 왕국은 너희 것이요, 그 축복도 너희 것이요, 영원의 재물도 너희 것이니라.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세상의 것이 저에게 더하여 지리니 참으로 백 배 이상 더해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일을 행하라. 너희 구속주 곧 너희를 데려가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아들 아만이 말씀하시느니라.

“충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라.”(교성 78 : 17-20, 22)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답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우선 순위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그가 명하시는 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나의 간증을 기억하고 내가 성령이 함께 하는 기쁨을 누렸던 것을 기억하면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성령의 인도를 간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그를 신뢰하였을 때, 그가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권고하신 대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행할 때 그가 나를 인도하심을 느꼈던 것과 나의 수고의 열매에서 기쁨을 누렸던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

씨를 싹트게 함 (선교사 훈련원)

앨빈 제이 레버트

선교사 훈련원의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성공의 이야기이다. 이 장소는 수많은 젊은 남녀에게 그들의 생에서 가장 큰 성공을 경험하게 해준다. 여기에 오는 사람은 거의 누구나 지식의 습득과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성취한다. 이곳은 마음과 가슴에 기적이 일게 하는 곳이다. 이곳은 일부 장로와 자매들이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의 빛줄기를 처음으로 숨쉬게 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원장이 하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성공하도록 도와 주는 일에 완전히 몰바치고 있다. 이 기사가 작성될 때 선교사 훈련원 원장이었던 조우 크리스찬슨 원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선교사 개개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우리가 여기에 도착하는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만들어 배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부족한 사람을 뽑아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오는 사람이 누구나 틀림없이 선교 지역으로 나가고, 바라건대 훌륭한 선교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온 사람 가운데 99퍼센트 이상의 선교사가 선교 지역으로 나갑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일부는 나중에 돌아와서 선교사로 봉사합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남아서 선교 사업을 완수하도록 권고하지만 스스로 결정하여 떠나고 맙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단한 성공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부적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집으로 되돌려 보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어떤 선교사가 단지 언어를 배우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선교사의 지명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배우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과 함께 노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문적인 총명함이 아니라 영성이 한 선교사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제1의 우선 순위는 성령에 의하여 가르칠 수 있는 선교사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성취가 선교사 훈련원의 주목적은 아니지만 이 훈련원의 학문적인 수준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언어 훈련 시설의 하나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대의 훈련 기법 가운데서도 최상의 것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과 과정과 연결시키고 있다.

여기에서의 교수 방법은 완전히 긍정적이다. 만일 어떤 선교사가 배우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같이 보이면 그는 자신이 배우는 데 있어서의 약점이 아니라 장점을 평가받는 시험을 받게 된다. 선교사 훈련원 조사는 개개인의 최상의 학습 여건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더 잘 외우며 어떤 사람은 말로 소리를 낼 때 더 잘 외운다. 어떤 사람은 인쇄된 자료로 공부할 때 가장 잘 배우고 어떤 사람은 녹음된 자료로 가장 잘 배운다. 어떤 사람은 좀더 단계적으로 배울 때 가장 잘 배운다. 어떤 사람은 광범위한 전체 개요가 필요하다. 일단 선교사 훈련원의 임원이 어떤 선교사의 학습 능력을 결정하게 되면 학습 프로그램을 그 사람의 개인적인 필요 사항에 적합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그 선교사에게 전례없는 성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미래의 학습에 대비하여 평생 동안의 열쇠를 마련해 준다.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명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젊은이를 위하여 가장 훌륭한 훈련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연구와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선교사 훈련원 임원들은 학습상의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난 선교사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거의 읽지를 못했다. 어떤 사람은 배우는 데 있어서 기능적인 장애가 있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 토론 내용을 조금밖에 알지 못하면서 선교사 훈련원을 떠났으나 선교 지역에서 뛰어난 성공을 거두었다. 대부분의 선교사는 배우는 데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위안이 된다. 선교사가 제명을 지키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가 정말로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 경험에서 입증되었다.

행정 책임자인 알렌 시 오스테가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에는 방문자가 많이 오며 그 중 대부분은 아직 교회 회원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바깥 세상에서 선교사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뛰어난 젊은 남녀를 훈련시키는지 보고 싶어합니다. 전세계의 많은 대학교로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국무성과 미 합중국 정부와 기타 많은 정부 기구의 정부 관리들도 찾아 왔습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도 왔습니다. 로마의 바티칸 교황청에서도 사람이 왔습니다. 나사렛 교회에서도 사람이 왔습니다. 침례 교인과 감리 교인도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훈련시키는지 보러 온 군인도 있었습니. 한 번은 미합중국 군대의 고위 장성 5명이 우리를 방문하였습니. 그들은 미 합중국내의 군대의 언어 훈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 그들은 이를 동안 교실을 방문하고 선교사와 이야기하고 우리의 자료를 검토하였습니. 그들은 그 일정을 다 끝내고 이렇게 말했습니. ‘우리 군인들이 여기에서 훈련을 받도록 여러분과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안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그러자 그들은 많은 질문을 했습니.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여기에 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묻는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기에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합니까? 그것을 모르겠습니.’ 그러면 ‘간증’, ‘의’, ‘주님의 영’ 등과 같은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갑니.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모든 차이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훌륭한 훈련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교 사업의 위대한 정신과 주님의 영을 덧붙이면 선교사가 자기 역할을 다하는 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의 이런 엄청난 성공은 임원들의 공로로 많이 돌릴 수도 있다. 극소수이지만 고도의 훈련을 받은 헌신적인 정식 임원의 지도하에 600명 내지 700명의 시간제 교사와 지역별 책임자 및 훈련원이 이 일을 수행한다. 이 교사들과 훈련원은 대부분 최근에 귀환한 선교사로서 선교사의 대업을 위하여 뛰어난 능력과 헌신을 보인 사람들이다. 영어 훈련 책임자인 조지 티 테일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여기에 오는 교사들

을 매우 엄격하게 선정합니다. 우리는 재능이 있고 정력적이고 동기가 훌륭하고 간증을 가진 남녀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극소수의 정식 훈련 임원과 상당히 많은 시간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아마추어’ 교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주님의 도움을 받아 매일 기적을 달성합니다.”

선교사 훈련원의 직원은 자신의 일이 “그저 수많은 직업 중의 하나”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테일러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제 생애의 매일매일을 여기에 있게 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며 명예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일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면에서 준비했지만 여기에 저의 자리가 있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과분

합니다. 저는 이곳에 대하여 굉장한 경외심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며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 봉사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매리 엘렌 에드먼즈도 같은 의견이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며 여기에서 일하면 그것을 느낍니다. 그저 여기에 있기에 합당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것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성별된 2천 명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기쁨부음 받은 사람을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테일러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선교사 훈련원에는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도록 부름받은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저는 여기에 어떤 큰 힘이 모든 것을 움직이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도와 주며 교과 과정과 개발과 조사와 훈련을 지도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늘 깨닫지 못하는 어떤 압도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왔는지 되돌아보면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인도하시며 지지하는 손길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손길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 향하여 움직이게 합니다.”

선교사 훈련원은 이 지상에서 성신의 영향력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그런 특권을 받은 곳 가운데 하나인 것 같다. 수천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발표하기에는 너무나 개인적인 신성하고 영적인 경험을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접근하고 있으며 때로는 겹쳐지고 있다고 간증한다. 아마도 신전을 제외하고는 이 지

상에서 주님의 계획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하고 악마에게 이보다 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진행되는 곳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행복의 모든 요소가 다 있다. 의, 숭고한 목표, 그리고 사랑이 있다. 크리스찬슨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선교사들을 제 아이들처럼 사랑합니다. 가끔 제가 아주 가깝게 알게 된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들이 도달해야 할 수준으로부터 가깝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해냅니다. 여기에서 경험하는 중심이 되는 것 가운데 무엇이든 올바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선교사에 대하여 갖고 있는 큰 사랑과 감사입니다.”

대부분의 선교사에게 이곳 생활이 기쁜 경험이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크리스찬슨 원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선교사들은 여기에서 매우 재미있는 생활을 합니다. 건물 사이를 산책해 보십시오. 그러면 매우 행복한 사람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늘 미소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유쾌합니다. 그들이 무언가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매우 강한 느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복음 원리를 즐기지 않으면서 인생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합니다. 그들로부터 매일 그런 이야기를 들읍시다.

“저의 가장 큰 소망은 모든 사람이 복음에 대한 간증이 더 커지고 선교사로서 자신의 부름에 대한 영이 더 자라서 이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나가서 이 사업을 행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며 또한 우리가 그들의 자아상과 이 일을 할 능력이 있다는 느낌을 복돋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명받는 선교부에 도착하여 비행기에서 내릴 때 영어나 기타 어떤 언어로든지 실제로 가르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을 갖추고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 씨앗을 싹트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옥수수를 심는 작은 마당이 있는데 아내와 저는 옥수수를 심기 전에 씨앗을 뜨게 하면 더 빨리 솟아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곳은 씨앗이 싹트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이 여기를 떠날 때 그들은 선교부의 비옥한 토양에 심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교부장과 부인이 그들을 받아들여 그 비옥한 토양에 둘 것이며 그들은 매우 빨리 잘 자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선교 지역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오랫동안 데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문자 그대로 싹트기 시작하는 올바른 환경에 둘 수 있다면 이곳에서 떠난 후 매우 잘 자랄 것입니다.”

이곳에서 싹이 튼 씨앗의 열매 즉 남은 기간 동안 영원히 지상의 축복이 될 풍부한 수확을 우리는 세상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선교사 훈련원의 훈련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행하여진다.

1. 복음 연구 및 영성. 모든 선교사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과 성령을 인식하는 것을 증진시키도록 격려해 준다. 그들은 말뿐 아니라 모범에 의하여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생활을 완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도움을 받는다.

복음 진리를
즐기지 않으면서
인생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가. 기본적인 교회 교리에 관한 지식 얻음.
 -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강화 시킴.
 - 다. 선한 사업의 결과를 낳는 신앙을 발전시킴.
 - 리.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받음.
 - 마. 순종함.
 - 바. 개인적인 합당함을 증진시킴.
 - 사. 다른 사람을 사랑함.
- 선교사들은 선교사 훈련원에 있는 동안
- 가. 가능한 한 물문경을 많이 읽는다.
 - 나. 선교사 소책자를 읽는다.
 - 다. 선교사 참조 성구를 공부한다.
 - 리. 매주 한 번씩 신전을 방문한다.
 - 마. 총관리 역원이 말씀하는 예배에 참석한다.
 - 바. 정규 일요일 예배에 참석한다.

모든 선교사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과 성령을
인식하는 것을
증진시키도록
격려해 준다.

- 사. 매주 평일의 지부 모임에 참석한다.
- 오. 지부장으로 부터 권고를 받는다.
- 즈. 선교부 대회에 한 번 참석한다.
- 츠. 선교부장단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
- 카. 신권 의식을 수행하는 것을 배운다.
- 타. 복음 연구반에 참석한다.

2. 전도 기술. 이 훈련은 모든 선교사가 주님이 준비시킨 사람을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개심을 경험하도록 도와 주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어서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을 개발하게 해준다.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선교사들은

- 가. 개종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배운다.

- 나. 선교사 토론을 이용하여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배운다.
- 다. 선교사 토론을 뒷받침해 주는 경전을 공부한다.
- 리. 사랑으로 가르치고 구도자가 성령에 의하여 개심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교수법을 배운다.

3. 개인적인 발전. 이 훈련은 모든 선교사가 적극적인 자아상을 발전시키고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복리를 강화시킨다.

- 가. 신체 단련. 모든 선교사가 신체 단련반에 참석하여 긴장을 풀고 힘을 키우고 심장 혈관 내구성을 개발한다. 또한 휴식을 위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을 즐기는 시간도 주어진다.

나. 외교 사절 능력. 모든 선교사는 관용, 이해 및 변화에 대처하는 등 문화권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기술의 훈련을 받는다.

다. 특별한 개인적인 도움. 모든 선교사는 태도, 의복, 위생, 영양, 체중 조절, 영어 용법 등과 같은 문제에서 훈련을 받는다. 자매 선교사는 화장, 머리 다듬기, 자세의 훈련을 받는다.

리. 안전. 선교사들은 안전하게 운전하는 법, 자전거 안전 수칙, 캐스 난방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의 훈련을 받는다.

4. 언어 및 문화. 이 훈련은 제2언어에서 기본적인 회화 능력이 필요하게 될 선교사를 돕는다. 뿐만 아니라 영어를 말하는 선교사나 제2언어를 말하는 선교사나 모두 자신이 봉사할 사람들의 구체적

인 문화적 규범과 기대하는 것에 관하여 배운다.

5. 과외의 지명을 받은 선교사들. 모든 선교사의 기본적인 전도 임무 이외에도 부부 선교사나 일부 자매 선교사들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다른 여러 가지 의무를 지명받을 수 있다. 이런 선교사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의 훈련을 받을 수 있다.

- ㄱ. 지도력 및 회원 사업
- ㄴ. 복지 봉사
- ㄷ. 방문자 센터
- ㄹ. 공보
- ㅁ. 선교부 사무소 임원
- ㅂ. 계보
- ㅅ. 교육
- ㅇ. 신진
- ㅈ. 국제 선교부



선교사 훈련원에서 가르치는 언어

아프리카어	만다린어
미국 수화 언어	나바호어
괘뚱어	놀웨이어
벤마크어	폴란드어
화란어	포르투갈어
영어(제2언어로서)	라로우툼가어
핀란드어	노어
불어	사모아어
독어	세르보크로아티아어
희랍어	서반아어
아이슬란드어	스웨덴어
인도네시아어	타히티어
이태리어	태국어
일본어	통가어
한국어	월남어

봉사

선교사 훈련원은 매우 크고 복잡한 기구

이다. 훈련 프로그램 이외에도 선교사에게 많은 봉사를 함으로써 이곳이 하나의 독립된 작은 세계를 형성한다. 여기에서 여행과(매주 수천 명의 선교사가 세계 방방 곡곡으로 날아간다), 우체국, 세탁소, 카페테리아, 서점, 복사실, 체육관, 헬스 클럽, 드라이크리닝 장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 선교사 훈련원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 이외에도 현재 7개의 지역 선교사 훈련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서울, 일본의 동경, 뉴질랜드의 해밀턴,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칠레의 산티아고, 필리핀의 마닐라, 브라질의 상 파울로에 있다. 이런 훈련원은 선교사들의 모국어로만 훈련하며 그들의 훈련 기간은 5일부터 14일까지 다양하다.

*

그녀의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제닌 울시 바스가드



나는 그날 밤까지는 늘 자신이 “홀로한 경청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가족 가운데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항상 집에서 음성을 낮추고 듣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까지 경청하는 것은 단지 조용히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그날 밤까지는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그렇게까지 결사적으로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날은 몹시 지루한 하루였습니다. 나는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 남아 있기 위하여 밤에는 시간제로 일하고 낮에 학교에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고된 하루를 보내고 밤늦게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피로하고 약간은 자기 연민에 빠졌었습니다. 그 늦은 시간에 식당은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식기를 들고 몸을 돌려 식당을 찾았습니다. 눈이 닿는 한쪽 구석에 어떤

여성이 혼자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꼭 숙이고 자기 음식을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큰 책가방과 책과 종이와 그녀가 앉아 있는 식탁 위에 온통 널려 있었습니다. 그 모든 외양을 볼 때 그녀가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빈 식탁이 얼마든지 있었으므로 나는 그 중 한 식탁에 앉으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먼저 본 그 여성의 옆에 앉아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비록 일반적으로 수줍어하는 편이었는데도 내가 그녀의 식탁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가볍게 그녀의 어깨를 두들기고 옆에 앉아도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내키지 않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식탁에서 책과 종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외모나 자세나 태도는 모두 혼자 있고 싶다고 나에게 이야기했으며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주제

넘게 참견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친척히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상하게도 그녀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내가 평생 동안 사친 친구인 것같이 느꼈으며 그녀에 관한 모든 것을 또한 그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하여 알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는 아주 자유롭게 이야기했으며 아마도 우리가 유지해야 할 이미지나 지켜야 할 평판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친구들보다 더 자유롭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녀는 당시에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절망적인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나왔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다시 여기에 홀로 앉아 있는 동안 온 세상에 내 친구는 하나도 없다고 느끼고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내게 대하여 염려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생각해 낼 수 없었어요. 당신이 나에게 걸어와서 옆에 앉아도 좋으냐고 물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끝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앉아 있었어요. 당신은 오늘 밤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었는지 절대로 모를 거예요. 당신을 안 지 불과 몇 시간밖에 안되지만 당신이 나의 친구이며 나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당신이 나를 염려할 수 있다면 아직도 나를 염려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해요.”

나중에 우리는 포옹을 하고 각각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갑자기 나는 그녀의 이름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캄캄한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그 소녀의

옆에 있어야 되겠다는 느낌에 귀기울인 것을 알고 자신에 대하여 몹시 흐트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문제와 비교할 때 나의 문제는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그러는 순간 갑자기 나는 이전에 이와 비슷하게 어떤 사람에게 말을 걸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전화를 하거나 격려의 말을 해주라는 느낌을 받았던 모든 순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 주재님게 줄고 싶지 않다든지 나 자신의 문제로 너무 피로하거나 염려가 된다는 구실과 또한 자주 받았던 그런 속삭임에 귀기울이지 않으려고 사용했던 수백만 가지의 이유가 모두 생각났습니다.

갑자기 그때 나는 등한시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금 이야기를 한 그 소녀 못지 않게 절망적인 욕구를 갖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전에는 정말로 “홀통한 경청자”가 되려면 먼저 성령의 속삭임에 귀기울이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결코 인식하지 못했었습니다. 성령이 없이 혼자서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성령이 함께 할 때 마음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를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겠지만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권고를 두 번 다시 듣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그림 : 리차드 헐

내 형제가 저기 삽니다

리 마호니

“저 연기가 어디에서 나는건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
요. 뭐가 타고 있을까요?”

“마른 풀을 태우는 것이겠지.”

“그렇게 가깝지 않아. 그렇게 보일 따
름이야.”

“그래, 아마 어딘가 우리...근처...아
니!”

그날은 우리의 결혼 13주년 기념일이
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다른 여러 가
지 일 때문에 멋진 식당에서 점심 식사로
자축하고 다섯 자녀를 그 잔치에 포함시
키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막 주
문하자마자 한 아이가 그 연기를 보았으
며 우리의 축하 분위기는 일순간에 허물
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 불을 우리
집 근처는 아닐꺼야 그러니 어쨌든 점심
이나 끝내자라고 서로 이야기하려 했읍
니다. 그러나 그 불은 우리 집 근처였읍
니다. 우리는 다급하게 차를 타고 집으
로 달렸습니다.

그 거리는 약 16킬로미터밖에 안되었
지만 그날은 얼마나 멀게 생각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연기가 나는 곳으로
가까이 갈수록 더 열려가 되었습니다.
그 연기는 틀림없이 우리 집 근처에서 나
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날 차
를 타고 가면서 모든 가족의 표정에 떠올
랐던 그 두려움과 걱정을 잘 기억하고 있
읍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남쪽에 살고 있었
으며 건조한 여름이 지나고 나면 그곳에
무서운 산불이 일어나는 것이 아주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언덕 꼭
대기 근처에 있었으며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 집 뒤
와 언덕 내리받이에는 수천 헥타의 개발
되지 않은 땅에 풀이 무성했고 나무가 여
기 저기 모여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
름 내내 크게 자란 풀은 강우량이 부족하
여 바싹 말라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
었는지 풀밭에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집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경찰
과 소방차 몇 대가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
에 와 있었습니다. 바람은 우리 집을 향
하여 불고 있었으며 불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하나님, 우리 집을 구해 주
옵소서.”라고 짧은 기도를 속삭였읍니
다.

길에는 귀중한 소유물을 안전하게 끌
어낼 수 있는 조그마한 트럭 한 대밖에
없다는 사실에 직면한 사람이 어떤 것을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지 알게
되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는 금전적인 가치보다는 감정이 더 큰 역
할을 했습니다. 가족 기록이 처음 나왔
고 우리가 끌어낼 생각이라도 했던 유일
한 가구는 증조부모님이 쓰시던 조울도
할 수 없는 피아노였습니다. 딸들은 그
들이 중요하다고 선택한 것을 갖고 워드
회원 한 사람과 다른 곳으로 보내졌으며
11세된 우리 쌍둥이 아이들은 젖은 담요
를 지붕 꼭대기에 덮어서 지붕을 젖은 상
태로 유지하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언덕에는 집이 몇 채밖에 없었고 모



두 서로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모두 하는 것처럼 우리 재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마른 풀과 관목을 치워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쓸모없는 일같이 보였으나 어쨌든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을 구해 주옵소서.”

불길이 점점 가까워졌고 그곳이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뉴스 보도의 표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가 우리를 겨누고 있었으며 저

녁 뉴스를 위하여 우리를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집이 불에 탈 것을 기다리고 있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어떤 기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섭습니다.”

경찰이 오랫동안 우리 지역으로 오는 교통을 모두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과 가까운 친척만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갑자기 남자들이 가득 탄 차가 한 대 도착하였습니다. 그들

은 모두 돕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우리는 그들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장로들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도로가 차단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을 통과할 수 있었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엘렛트 형제님, 어떻게 경찰관을 통과했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절절 웃으면서 “아주 쉬웠어요. 그냥 내 형제가 저기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형제들도 그 방법으로 교통 차단선을 통과한 것 같았습니다.

몇 분 후에 장로들이 계속 오고 있었는데 한 젊은 경찰관이 차도를 따라 걸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보러 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나와서 눈에 보이는 와드에서 온 사람들을 모두 세어 보았습니다. 39명을 세었습니다. 39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39명의 신권 소유자라고 생각하였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다하여 불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삽, 췌이, 칼쿠리 심지어는 지팡이까지 갖고 불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거기에서 나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소수의 쓸모없는 연장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평안한 느낌이 나의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불도 이 불과 싸우는 사람들의 전신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까지 알았던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확실히 알았습니다.

누구라도 완전히 자란 나무가 모인 것

이 심지어는 단 한 그루의 다 자란 나무라도 그것이 불로 폭발하는 것을 본 사람은 특히 그것을 가까운 곳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가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서서 하늘에 닿을 것 같은 불길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와 나의 모든 소유물은 그 무서운 불길로부터 안전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딱 차 있었던 화평과 고요함은 도저히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교회 회원이라는 것과 내가 가진 지식에 대하여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보존해 주실 물질적인 것에 대하여 서라기보다는 그 어느 것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도저로 불탄 지역과 우리 사이에 큰 도랑을 팠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는 그들의 뉴스 거리를 녹화하느라고 바빴습니다. 만일 갑자기 어떤 다른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 불도저로 판 지역만으로는 그 불을 멈추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맹렬하게 우리 집을 향하여 계속해서 불던 바람이 예상 밖으로 완전히 방향을 돌려서 이미 불이 탄 지역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불과의 싸움이 훨씬 더 쉬워졌으며 그 불은 그 불도저로 판 지역을 넘어서 우리 집까지는 결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내 형제가 저기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내 형제! 그때 나는 교회에서 우리를 함께 묶어 주고 있는 그 유대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과 염려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습니다. *

여러분의 앞자리

진 알 쿡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나는 이 땅 위에 살았던 젊은 세대 중에서 수나 자질 면에서 가장 위대한 이 왕같은 여러분의 세대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선은 그 양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상 생활을 끝내기 전에 여러분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미칠 것입니다.

이 왕같은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두 젊은이에 관하여 말씀드리 볼까요? 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단지 그들의 선한 영향력의 일부를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1978년 가을에 제프는, 이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인생을 놓고 극도로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태어났으나 대부분의 시간을 비활동 회원으로 지냈습니다. 교회 회원과 결혼하였으나 몇 년이 지난 후 결혼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련 이외에도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뇨병을 앓았으며 그로 인하여 시력의 일부를 상실했습니다.

그는 어떤 화학 공장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장 동료들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달 동안 "이리 와, 제프. 맥주 한 잔 하러 가세." "담배 한 대가 그렇게 해로울 건 없어." "오늘 밤 함께 재미볼 수 있는 예쁜 친구들이 좀 있네."라는 등의 말로 그를 꼬였습니다. 계명을 깨뜨릴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이런 것에 한 번도 끼어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제프는 낙담하고 외로운 가운데 친구들과 함께 도박하는 카지노와 무절제한 생활 방식으로 알려진 한 도시에 가서 난폭한 시간을 갖자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절망감에 빠진 나머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도 더 이상 나에게 대하여 염려하지 않아. 나는 비참해, 갈태야." 그는 버스에 앉아서 자신이 행할 것에 대하여 옳지 않은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는 진처와 교회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독립한 것을 과시할 작정이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악령이 즐기차게 붙어 있자 그는 자신이 어떤 행동 과정을 택할 것인지 점점 더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미군이 버스에 타서 가운데 통로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번호의 좌석을 택할 수 있었겠는데도 제프 곁에 앉았습니다. 이 군인은 매우 명랑한 젊은이로서 제프에게 말을 걸면서 "가족 단위" "교회" 등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프는 이 젊은이가 우리 교회 회원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군인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담배나 술, 커피 등을 먹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한 내가 만 26세인데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프는 깜짝 놀란 척을 하면서 "아, 그렇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 군인은 "그것에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제프는 “아니요,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택하여 행동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복음의 참됨에 대하여 간증하고 그러는 동안 지난 6년 동안에 15명에게 침례주는 특권을 누렸노라고 말했습니다. 그 군인은 자기가 내릴 곳에 버스가 닿자 다시 간증을 하고는 버스에서 내려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프는 놀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데 이 젊은이는 나만큼 문제가 많으면서도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나는 여기 있어서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을 비난하고 있단 말이야.” 바로 그 순간 제프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수없이 반복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내 생활을 지배해야 해. 나는 이 상황에서 빠져 나가 좀더 긍정적이 되어야 해.” 그는 그 도시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으나 이번에는 제프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이 강화되고 또한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 주님이 도움을 주는 사람을 보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젊은 군인은 자신이 교회 회원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있을까요?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으며 그의 손길 안에 있는 도구로써 제프를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부터 구원했다는 것을 알까요?

또 다른 모범이 되는 젊은이는 어떤 선교사였습니다. 나는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 선교부장으로 있을 때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에서 비회원이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가 쓴 편지의 골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의 프레지던트 스트로스너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젊은 북미 선교사가 다가왔습니다.

“즉시 저는 그 선교사가 임무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상 일행들이 이 젊은 선교사에게 비행기에 타자고 부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이 나라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잠시 동안 시간을 내서 저의 옆에 앉아 간증을 전하고 소책자 ‘지혜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미 자기 임무를 완수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는 저에게 접근해야 할 이유가 없었지만 그는 성령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한 저도 그것을 느꼈던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소책자 ‘지혜의 말씀’을 읽었으며 거기에 있는 요셉 스미스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통하여 주님의 성령을 느꼈던 것처럼 특히 선교부장님에게 얼마나 훌륭한 선교사가 있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선교부장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제가 물론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해주실 수 있었습니까?”

나는 가끔 이 선교사가 혹시 이 세상에서는 아니더라도 다음 세상에서 마침내 이 사람을 알게 될 때 어떤 느낌이 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아마 “……장로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장로는 “모르겠는데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장로님, 저를 다시 보십시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마 그 장로는 “아니네요, 전에 뵈 적이 있었나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에 있는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하십니까? 바로 장로님이 저에게 간증을 하셨던 사람입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책임을 느끼셨으며 저는 장로님 때문에 칭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몸짓을 해 보이며 “또한 제 아내와 여기 다섯 아이와 그들의 자녀와 또 그 자녀의 자녀들도 칭례받았습니다. 사실상 장로님, 이 수백 명의 사람이 장로님 때문에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장로님이 두려워 하지 않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충고에 순종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중 몇 사람을 크게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노니, 저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재능을 숨겼음이라. 그러한 자에게 화가 있나니, 내가 저들을 향하여 노여워함이니라.’”(교성 60 : 2) 훗날 이 젊은 장로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별로 가치없는 것이었으며 혹은 단지 “씨를 뿌림”으로 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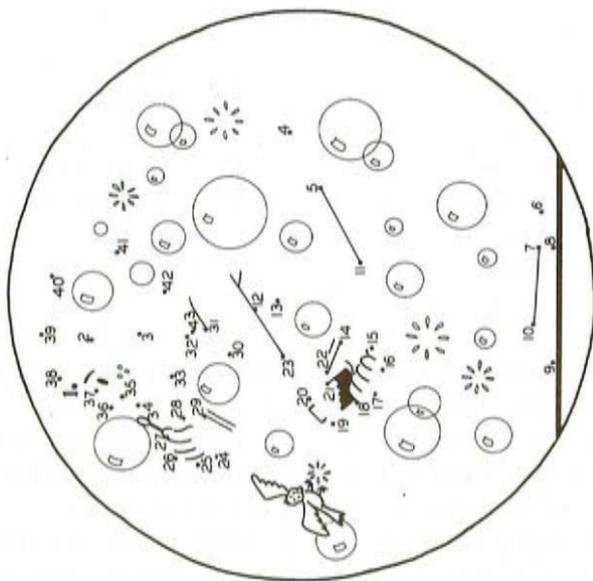
성한 수확을 거두었음을 깨닫게 되면 곧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젊은 주님의 종의 비이기적인 행동은 분명히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을 모두 잘 아십니다. 또한 그들이 기꺼이 성령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려 하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잘 활용하셨으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느낌과 생각과 이기적인 욕망에 너무 사로잡혀서 주님이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주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의 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젊은 세대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서 자신의 의로운 영향력이 역사되도록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기적을 달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성령의 권고에 귀기울이고 그 지시에 따를 용기를 갖도록 기도하십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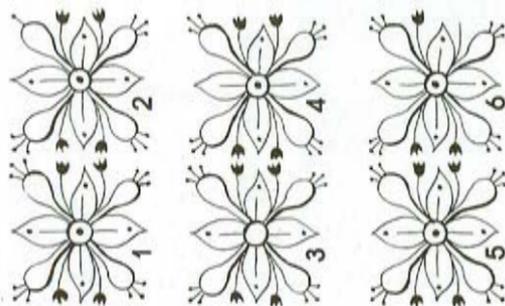
거품과 점선



점선을 번호에 따라 연결하여 거품이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보세요.

로버타 엘 패어를

쌍둥이 그림



가장 비슷한 두 가지 그림을
찾으세요.

프란시스 카피 매트랑카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1절-16절)



이 지상에서 살았던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아담과 이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들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들의 자녀들을 유혹하여 “이 말을 믿지 말라.” 하니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자라나면서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탄을 따랐습니다. 가인이 거역하는 것을 본 아담과 이브는 마음이 매우 슬펐습니다. 그들은 가인을 매우 사랑했으므로 그가의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담은 신권을 받았는데, 이 커다란 축복을 가인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신권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잘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부모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랐고 신권을 받아서 의롭게 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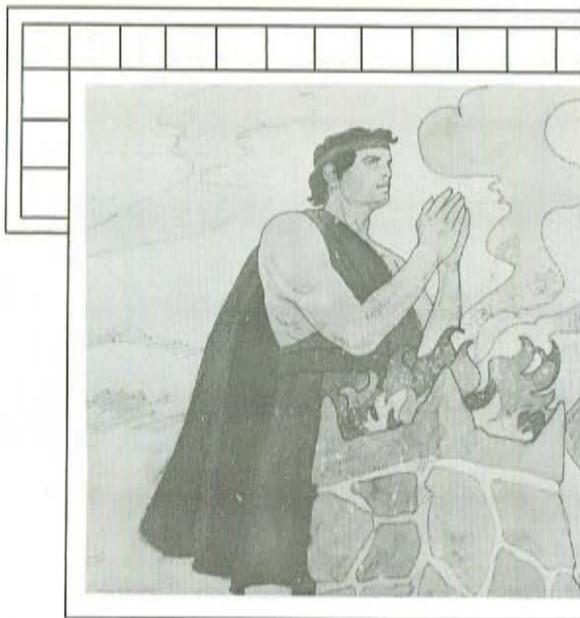
두 아들이 자라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에게 말씀하

시자,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며 그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말씀하셨으나 가인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내가 알아야 할 주가 누구요?”라고 말했습니다. 가인은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했습니다.

아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의 양떼의 첫새끼를 가져 와 주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사탄은 가인에게 “주께 제물을 바치라.”고 명했습니다. 그는 제물로 그의 땅에서 난 곡식을 가져 왔습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복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가인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았으며,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가인은 화를 냈지만 주님께서는 그래도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인이 만일 올바른 제물을 바친다면 기꺼이 그것을 받으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만일 가인이 주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그를 원하므로 그는 사탄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가인은 더욱더 화가 나서 주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담과 이브는 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의로움 대신에 사악함을 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용납되었고 자신의 것은 거절당한 것에 가인은 질투가 났습니다. 그는 또한 아벨의 양 떼가 탐이 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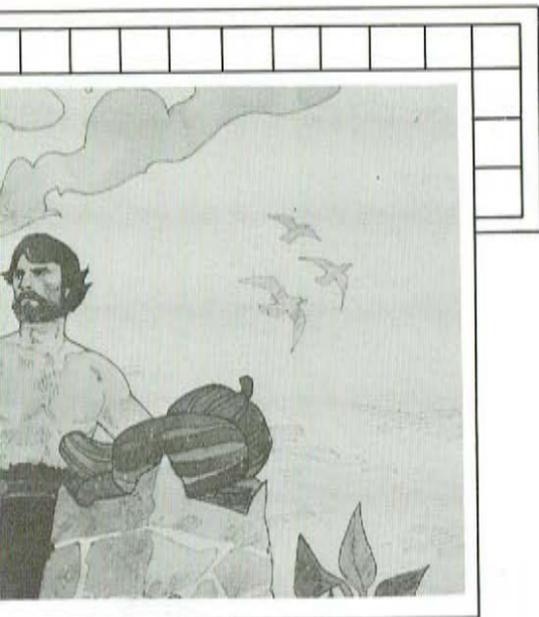
그것들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가인이 동생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그의 증오와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사탄은 사악한 쪽으로 가인을 가르치고 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게 복종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라. 그리하면 네 동생 아벨을 네 손에 내가 넘겨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가인은 이 말을 듣고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참으로 나는 이 큰 비밀의 주인 마한이니, 이로써 내가 살인하여 이득을 보리라.”

그런 다음 가인은 들에 나가 그의 동생을 찾았습니다. 가인은 아벨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를 죽였습니다.

가인은 사탄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동생을 죽였다는 것을 아무도 알



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가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오니까?”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행하였느냐?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부르짖느니라. 이제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사탄은 가인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주님께서 자기가 저지른 죄를 아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자 남에게 그 죄과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이 나를 유혹하였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가 기억하자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쫓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세상에서도 망하여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벌이 너무 무거워서 저로서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뵈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가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를 해치지 않게 하시려고 가인에게 한 가지 표를 붙여 주셨습니다. 가인은 주님의 면전에서 내쫓기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와 여러 형제들은 아담과 이브의 곁을 떠나 에덴의 동쪽 늦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

멜리사의 침례

헬렌 이 키이저



새라 톰슨은 남편 테드가 퇴근하여 집으로 오기 전에 세탁을 끝내기 위하여 바쁘게 더럽혀진 옷을 모으고 있었다. 새라는 멜리사의 침실 문을 열고 바쁘게 셔츠와 청바지와 양말을 집어 들었다. 막 나가려고 몸을 돌리다가 방안에 누가 있는 것을 알았다.

“아니, 멜리사, 다른 아이들과 밖에서 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니?”

멜리사는 울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며

한참 있다가 겨우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토요일에 침례받고 싶지 않아요.”

톰슨 자매는 즉시 침대 위에 가서 딸의 옆에 앉아 팔로 안아 주었다. “멜리사, 그건 괜찮아. 그렇지만 너는 벌써 몇 개월째 네 침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8번째 생일이 빨리 왔으면 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잖아. 왜 마음이 변했지?”

“무서워요.”

톰슨 자매는 미소를 지었다. “멜리사,



너는 전에 침례식에 가 보았잖아. 거기
에 무서울 것이 뭐가 있니? 그뿐 아니라
네 친구 앤과 새라도 토요일에 침례받을
거야. 그 애들이 네가 용기를 내도록 도
와 주지 않겠니?"

멜리사는 부드럽고 불안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만 그 애들은 저
하고 달라요. 그들은 자기 아버지가 침
례줄거예요."

틈슨 자매는 회원이 아닌 멜리사의 아

버지가 딸을 침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
으나 그들의 가정 복음 교사가 침례를 주
겠다고 약속했을 때 멜리사가 기뻐한 것
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네가 애덤
슨 형제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 그 사람
은 아주 특별한 분이잖아."라고 말했다.

멜리사는 흐느끼 울며 "저는 애덤슨
형제님을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똑같지는 않아요. 그 형제님은 우리 아
버지가 아니예요."

“오, 멜리사……”라고 말하며 톰슨 자매는 딸을 위로해 주려고 애썼다. 톰슨 자매는 남편을 몹시 사랑했으나 동시에 가슴이 아팠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남편과 함께 나누고 싶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모든 시간에 대하여 생각했다. 이제 그가 교회 회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다. 어쩌면 선교사들의 말에 귀기울이고 침례받기로 결정할 때 잘못된 결정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들의 메시지의 참됨에 대하여 강한 간증을 받았으며 남편도 곧 복음이 얼마나 참되고 좋은 것인지 깨닫게 될 것으로 확신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3년 전의 일이었으며 남편은 아직 교회 회원이 되고 싶어하는 기미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

톰슨 자매는 다시 부드럽게 “멜리사야, 초등학교에 가는 것이 좋지?”라고 물었다.

“아, 그럼요. 저는 이야기 듣는 것이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인 웨스트오버 자매님은 정말 훌륭하세요.”라고 말하면서 멜리사는 울음을 그쳤다.

톰슨 자매는 계속해서 “너는 그런 이야기를 믿니?”라고 말했다.

멜리사는 자신있게 “예, 물론 믿어요. 저는 이 교회가 참되며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였다는 것을 알아요.”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네가 그것이 참됨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니?”라고 물었다.

멜리사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았으며 또한 자신이 토요일에 침례받으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아버지와 그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없다니…… 그것은 좀 무섭게 생각되었다. 멜리사는 어머니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아빠가

토요일에 제가 침례받는 것을 보러 오실지 몰라요. 아빠가 집에 오시면 바로 여쭙어 보겠어요.” 멜리사는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갔다.

톰슨 자매는 남아서 침대에 앉아 깊이 생각에 빠졌다. 남편은 아직 한 번도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어. 교회의 사교 활동 모임에는 여러 번 우리와 함께 갔지만 복음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 갖지 않았어. 톰슨 자매는 멜리사가 다시 실망하지 않기를 기원했다.

멜리사는 아빠가 오시는 것을 보고 만나러 뛰어나갔다. 테드 톰슨은 딸을 팔에 안고 꼭 껴안아 주었다. “오늘 우리 아가씨가 왜 이렇게 신이 났지?”라고 미소를 띄며 물었다.

“아, 아빠. 저는 토요일에 침례받을 거예요. 생각 안 나세요?”

톰슨씨는 갑자기 심각해졌다. “그래, 엄마가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했어.”

멜리사는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얼굴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아빠도 오셔서 저를 보실거죠. 그렇지요? 꼭 부탁해요. 다른 애들은 모두 아버지가 오실거예요. 아빠도 오실거죠?”라고 멜리사가 사정했다.

톰슨씨는 그녀의 질문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 보자, 좀 두고 보자. 아직 토요일까지는 한참 남았어.”

멜리사는 실망했으나 “두고 보자”는 것이 “안돼”라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꼭 끌어안고는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

토요일은 아름답고 청명한 날씨였으며 멜리사는 자기가 침례받기에 꼭 맞는 날

이라고 생각했다. 멜리사는 그날 집 앞에서 아빠를 만난 이후로 함께 가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하셨기 때문에 멜리사는 아버지가 오실 것으로 생각했다.

그날 오후 멜리사는 한참 동안 따뜻한 물에 목욕했으며 어머니는 멜리사가 가장 이쁜 주일 의복을 입을 것을 도와 주었다. 문에는 톰슨 자매가 멜리사를 위하여 만든 이쁘고 흰 침례복이 걸려 있었다. 그들이 떠날 준비가 되자 톰슨 자매가 이렇게 말했다. “서둘러야겠다. 애야, 안 그러면 늦겠어요.”

멜리사는 “제가 아빠를 모셔 올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멜리사가 아버지에게 이르렀을 때 아빠는 아직 작업복을 입고 신문을 읽고 계셨다. “아빠, 침례식에 갈 준비가 안되었어요? 우리 늦겠어요.”

톰슨씨는 딸의 초조해 하는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멜리사야, 나는 네 침례식에 갈 수 없단다. 나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을거야. 나는 거기 소속이 아니거든. 제발 나에게 화내지 말아라.”

아빠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멜리사는 집을 뛰어나갔다. 톰슨 자매는 딸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으며 그 주에 두번째로 자신이 교회에 가입한 것이 실수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졌다.

앤, 새라, 멜리사가 침례받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는 동안 소녀들의 탈의실은 굉장한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새라는 흥분해서 이렇게 말했다. “정말 신나! 아빠가 물문경을 내 것으로 한 권 따로 사 주셨어. 거기에는 내 이름도 적혀 있고 온갖 것이 다 있어.”

앤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 참 멋있구나. 우리 가족은 내가 침례받은 다음 모

두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갈거야. 할머니께서 내가 기억의 책을 쓰는 것을 시작하도록 도와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새라와 앤은 멜리사가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새라가 “멜리사야, 너는 침례받고 뭘 하니?”라고 물었다.

멜리사는 자기 가족이 그냥 집으로 가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글쎄, 잘 모르겠어.”라고 말하고는 “아마 엄마, 아빠가 나를 깜짝 놀라게 해주실거야.”라고 덧붙였다.

멜리사는 옷걸이에서 자신의 흰 옷을 꺼내서 머리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가운데 그 안에 종이가 핀으로 찢혀 있는 것을 보았다. 멜리사는 핀을 빼어 내고 그것이 자기 아버지가 손으로 쓴 것임을 알았다. 멜리사는 이렇게 소리내어 읽었다.

“사랑하는 멜리사야, 오늘 너와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너는 네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했다. 나도 언젠가는 똑같은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한 용기가 있기를 바랄 따름이다. 내가 너를 매우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렴. 아빠가.”

멜리사는 옷을 다 입고 눈물을 닦았다.

멜리사가 침례탕의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애덤슨 형제가 도와 주는 동안 멜리사는 멜리사의 엄마가 이때까지 본 중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띄고 있었다. 그 순간 톰슨 자매는 3년 전에 자신도 침례탕으로 들어간 것이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

활동에 참여한 아론 신권 및 청년회 회원들



서울 스테이크 청년 및 소년 대회 성료

소년 대회

서울 스테이크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강원도 춘성군 남면 가정리 홍천 강변에서 “너희는 이 백성들의 빛이 되라”(니삼 12:14)는 말씀을 주제로 소년 대회를 가졌다.

아론 신권 및 청년회 회원들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둔 이번 대회에서는 예년과 같이 야영 생활을 통하여 독립심과 지도력을 키우는 한편 단체 활동에서의 협력과 단결력을 기르는 데에도 관심을 가졌다.

특히 청소년들의 극기 훈련을 겸한 하이킹, 마라톤, 씨름 그리고 축구 등을 통하여 신체 단련 뿐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돕는 봉사 정신도 배우게 하였다.

대자연에서 130여 명의 회원들은 우정과 사랑을 나누며 말일에 회복된 참된 교회에 속하게 되었음을 더욱 기쁘게 생각하였다.

청년 대회

같은 장소에서 현수막도 그대로 설치한 채 소년 대회가 끝난 이틀 후인 8월 6일부터 8일까지 28명의 독신 성인들이 참가하였다.

첫날은 텐트를 치고 불놀이를 즐겼으며 다음 날은 이번 대회의 주요 활동인 “오리엔테어링”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회사에서 신입 사원을 훈련하는 방법에서 고안한 것인데 장시간 동안 만들어지지 않은 산길을 개척해 나가는 훈련이었다.

이번 특별 활동에 참여한 독신 성인들은 활동하는 가운데 “선교 사업”을 주제로한 가사를 만들었으며 식용 식물을 가능한 많이 수집해 오는 활동도 하였고 7시간 동안 계속하면서 서로 도우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마지막 날에는 홍천 강변에서 우애와 협동심을 증진시킨 체육대회를 가졌다. *